

SUKHAVATI

Challengers To Champions 2024. 11. VOL. 81



Sukhavati Special 1

어떻게 안양은
다이렉트 승격에 이르렀나

Sukhavati Special 2

2013부터 2024까지...
수카바티, 진격의 승격 도전사

Special Interview

“2024년은 행복이다”
안양 역사에 발자국 새긴 마테우스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 전문 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인증 의료 기관'

정형외과 병원 since 2015

12인의 정형외과 전문의
목, 어깨, 팔, 손, 허리, 고관절, 무릎, 발 / 성인부터 소아까지 세부 파트별 진료
류마티스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19인의 협진을 통한 ONE-STOP 진료

SUKHAVATI

2024. 11. VOL. 81

04

FC ANYANG
2024 SQUAD

05

2024 PICTORIAL
승격 화보

06

SUKHAVATI SPECIAL 1
: 어떻게 안양은
다이렉트 승격에 이르렀나

08

SUKHAVATI SPECIAL 2
: 2013부터 2024까지...
수카바티, 진격의 승격 도전사

10

SPECIAL INTERVIEW
: "2024년은 행복이다"
안양 역사에 발자국 새긴 마테우스

12

PHOTO ESSAY
: FC안양 K리그2 우승!
다이렉트 승격!

15

2024
시즌 경기 일정



대표 최대호
사업자등록번호 138-82-06718
TEL 031-476-3377
FAX 031-476-2020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내 (13918)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ALL RIGHTS RESERVED

FC ANYANG 2024 SQUAD



감독 유병훈

코칭
스태프



김연건
수석코치



최익형
골키퍼코치



장석민
피지컬코치



주현재
플레이코치

지원
스태프



서준석
의무팀장



황희석
재활트레이너



신영재
재활트레이너



주종환
장비관리사



노상래
통역



김성주
전력분석관



조해원
실장



이우형
테크니컬디렉터



정준연
스카우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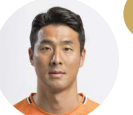
GK



1 이윤오



41 김성동



31 김다솔

DF



2 김민호



3 변준영



4 이창용



5 김건찬



6 박종현



20 임승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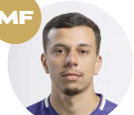


22 김동진



32 이태희

MF



7 마테우스



8 김정현



13 한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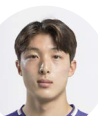
14 홍창범



16 최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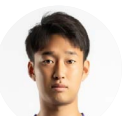
23 이민수



28 문성우



37 리영직



44 아치다



45 전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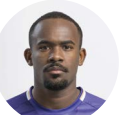
FW



99 주현우



9 니클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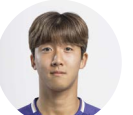
10 아오



15 박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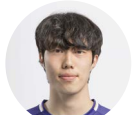
17 유정완



18 이동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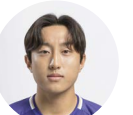
19 김운



33 이재용



71 채현우



77 최성범



94 한인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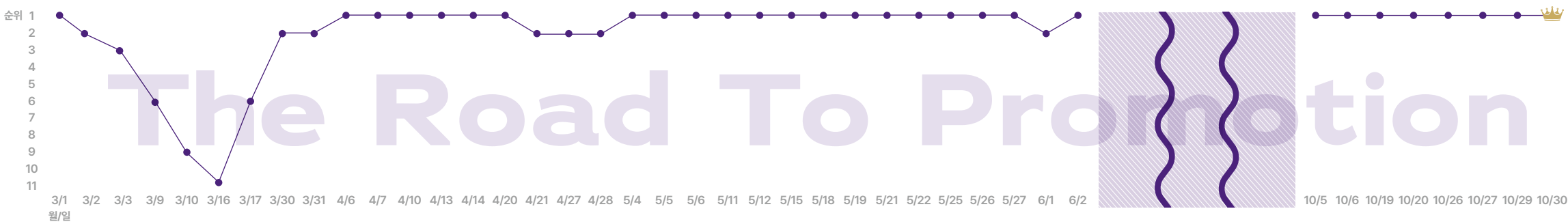
어떻게 안양은 다이렉트 승격에 이르렀나

다이렉트 승격. 이렇게 문자로 풀어 쓰긴 쉬워도, 실제 이뤄내긴 상상조차 힘든 미션이다. 더해 현 K리그2에서는 13대1이란 살인적 경쟁률을 뚫어야 했다. 이걸 해낸 팀이 있다. 안양이다. 시종일관 안정적 레이스를 펼친 끝에 꿈에 그리던 우승, 그리고 승격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 비결을 분석했다.

6월부터 폭 선두... 기록 없던 안정적 레이스

시즌을 앞두고 안양은 선장부터 바꿨다. 이우형 전 감독이 테크니컬 디렉터로 이동했고, 대신 수석코치였던 유병훈 감독이 들어갔다. 마테우스·김영찬·김다솔 등 포지션별 보강도 마쳤다. 이창용·김동진·주현우 등과 재계약하며 연속성을 이어갔다. 승격 의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산뜻한 출발을 보인 안양은 3월 16일 13개 팀 중 11위로 잠깐 떨어진 것을 빼곤 부침 없이 시즌을 났다. 순위 진폭이 컸던 3월을 보내고 4월부터는 선두권 레도에 안착했다. 4월 말경 수원 삼성의 초반 질주에 밀려 일주일간 2위에 머물렀던 것, 6월 1일 전남 드래곤즈의 기세에 2위로 잠깐 밀려난 걸 빼곤 줄곧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6월 2일부터 우승을 결정지은 11월 2일까지 무려 5개월간 1위를 놓치지 않으며 만년 우등생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위기와 견제가 없었던 건 아니다. 4월 중순 김포 FC와 수원 삼성에 첫 연패를 당했고, 초가을엔 서울 이랜드·충남아산·수원 삼성을 상대로 3연패했다. 시즌 초엔 수원 삼성에, 시즌 중엔 서울 이랜드·충남아산·전남 등의 견제를 받았다. 특히 다크호스 충남아산은 안양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하나 안양은 부진을 오래 달고 가지 않았다. 개막 후 7경기 연속 무패 등 탁월한 위기관리 역량으로 우승까지 내달렸다.

Team info



꿈을 현실로 바꾼 세 남자의 브로맨스

이번 시즌 안양은 조기 우승(35경기)을 확정 지었다. 18승 8무 9패, 승점 62로 다른 팀들의 추격을 뿌리쳤다. 우승 비결은 하나로 같음할 수 없지만, 단연 유 감독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 유 감독은 선수들을 하나로 규합시켜 선수단을 우승까지 이끌었다. 전술 역량도 탁월했다. 시즌 초부터 포 백 대신 스리 백을 택해 수비 안정화부터 들어간 결과 리그 최소 실점(34골)으로 우승에 도달했다. K리그2에서 안양보다 팀 득점이 많은 구단이 4개(서울 이랜드 62골, 충남아산 56골, 전남 57골, 부산 52골)나 되는데도 안양(49골)이 우승했던 비결이다. 유 감독을 뒷받침한 이들의 공로도 적지 않다.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이우형 디렉터의 존재다. 최 시장은 2018년 7월 재부임한 뒤 적극적 투자를 통해 승격을 뒷바라지했다. 거의 매 경기를 현장 방문해 응원하는 열정으로 물심양면 안양을 지원했다. 이 디렉터는 유 감독에게 많은 노하우를 불어 넣었다. 초대 사령탑으로서 안양의 유산이나 다름없는 그는 후배인 유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겨주는 아름다운 용단을 보였다. 2선으로 물러난 것뿐 아니라, 조언과 지지도 아끼지 않았다. 삼각형은 세 번이 합이 맞을 때 비로소 완벽해진다. 세 남자의 열정과 노력이 승격이란 삼각형을 세웠다.

2013부터 2024까지... 수카바티, 진격의 승격 도전사

2013년 K리그 챌린지(現 K리그2)를 통해 승격
도전의 첫걸음을 내디딘 FC 안양은 지난해까지 11
시즌 동안 세 번의 승격 문턱에 이르렀다.
그리고 '3전 4기' 만에 승격에 도달했다. 안양의 승격
도전사를 복기했다.

시즌별 일람 (PO 포함)

시즌	순위	승점	승	무	패	득	실	코리아컵
2013	5	45	12	9	14	50	51	
2014	5	51	15	6	15	49	52	
2015	6	54	13	15	12	53	52	
2016	9	46	11	13	16	40	53	32강
2017	7	39	10	9	17	40	58	
2018	6	44	12	8	16	44	50	
2019	3	55	15	11	12	64	52	16강
2020	9	25	6	7	14	27	38	3R
2021	2	62	17	11	9	52	40	16강
2022	3	69	19	13	10	53	43	3R
2023	6	54	15	9	12	58	51	2R
2024	1	62	18	8	9	49	34	3R



어둠의 터널을 거쳐 11년 해묵은 애환 털어낸다

시작은 평범했다. 2013년 K리그2에 참가한 안양은 출범 초기엔 리그 중위권 팀의 전형을 보였다. 2013·2014시즌 연속 5위를 차지했고, 이듬 시즌에는 6위까지 순위가 떨어졌다. 2016시즌은 악몽과도 같았다. 첫 시즌 이후 3년 만에 5할 승률에 실패하며 9위까지 추락했다. 이듬해 순위 자체는 7위로 두 계단 상승했지만, 창단 이후 최소 승점(39) 기록을 썼다. 바로 다음 해인 2018시즌 6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승격과는 거리가 멀었다. 창단 후 6시즌 동안 5~9위, 평균 6.3위에 불과했으니 실상 중하위권 포지션이었다.

그랬던 안양이 반동의 서막을 올린 건 2019시즌이다. 이 무렵 안양은 창단 후 최대 승점(55) 고지를 밟으며 3위에 올랐다. FA컵에서도 16강에 오르며 K리그1 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K리그2 최강의 삼각편대가 뒤흔던 시절이다. 국가대표 공격수 조규성이 14골 4도움을, 알렉스가 13골 5도움을, 팔라시오스가 11골 6도움을 올려 두 자리 수 공격포인트 레코더를 셋이나 배출했다. 이 시즌 안양은 상승세를 타고 K리그2 준플레이오프(PO)에서 부천 FC 1995와 홈에서 비기며 K리그2 PO에 올랐지만, 부산 아이파크에 0-1로 패하며 승격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듬 시즌 10개 팀 중 9위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안양은 2021시즌 절치부심, 정규 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번엔 준PO를 통해 올라온 대전 하나시티즌에 덜미를 잡혔다. 이듬 시즌도 3위로 나쁘지 않았던 안양은 이번엔 홈에서 치른 K리그2 PO에서 경남과 비기며 K리그1 10위 팀 수원 삼성과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승강 PO에 나섰다. 홈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긴 안양은 원정 2차전 연장 종료 직전까지 1-1로 수원 삼성과 팽팽한 승부를 펼쳤지만, 오현규의 버저비터에 눈물을 머금었다. 이때 들이킨 쓴 약이 보약이 된 걸까. 이로부터 2년 후, 신임 유병훈 감독 체제에서 쇄신한 이번 시즌은 PO조차 거부하는 완벽한 공수 균형에 힘입어 마침내 11년 묵은 애환을 털어냈다.

Special Interview

“2024년은 행복이다” 안양 역사에 발자국 새긴 마테우스

2024년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에 마테우스는 “행복”이라 답했다. K리그에 도전한 스스로에게도, 팀과 팬들에게도 커다란 행복과 성공을 안겨다 준 2024년은 잊을 수 없는 해다. 도움왕 타이틀과 MVP까지 노릴 만한 위치이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도 엔트리에 들고 싶다”라는 그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있었다.

Q 우승 축하드립니다! 승격이 확정된 부천전,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해요.

그 순간 행복해서 다른 건 다 잊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올해 목표를 이뤘다는 것, 제 인생의 목표이자, 우리 FC 안양의 목표를 이뤘다는 성취감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년을 위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Q 우승엔 여러 원인들이 작용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열정적인 A.S.U. RED 서포터스의 응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승 후의 카니발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같이 뛴던 가족들, 다른 클럽 구성원들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홈경기에서도 또 승리를 해서 다시 한 번 그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습니다. 홈이든 원정이든 항상 많은 팬께서 와주셔서 어려울 때도 이름을 불러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목표에 다가갈 수 있어 행복합니다. 브라질에서도 우승하거나 승격하면 이런 축제를 즐기고는 하는데요. 아내가 ‘안양 팬처럼 모두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서 축구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브라질에서도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최고입니다!

Q 가장 강력한 우승의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올해 초 태국 동계 훈련 때부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했어요. 모두가 승격 하나만 바라봤고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 누군가가 슬퍼할 때마저도 항상 가족 같은 끈끈함이 있었기에 승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Q 올 시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3연패 했을 때요. 3라운드 로빈 끝으로 갈수록 많이 흔들렸는데요. 저보다도 동료들이 힘들어했고, 스트레스받는 모습을 보며 참 속상했습니다. 모든 경기를 9점짜리라는 생각으로 임했고요. 감독님께서도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에는 1부로 올라갈 수 있다’고 자신감과 동기를 주셨어요.

Q 도움왕 타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땐 이렇게 어시스트를 많이 할 거라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선수보다, 매 경기를 뛰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어시스트까지 나오게 됐고요. 욕심도 조금 나지만, 마지막 경기도 엔트리에 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 홈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기 위한 각오 한마디!

승격을 확정하고 맞는 경기라 조금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기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까지도 엔트리에 들기 위해 100% 노력을 쏟을 거예요. 또 홈경기에서 모든 걸 쏟아서 꼭 승리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차하신 관람객 여러분,
빠른 출차를 위한
주차요금 할인 등록 하셨나요?

주차할인 등록방법

FC안양 K리그2 우승!
다이렉트 승격!

2013년 이후 11년을 기다려 왔던 문구,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K리그1으로 갑니다.



2024시즌 수카바티 안양, 개막부터 승격까지

1. 2. 코칭스태프 구성 완료

1. 5~8. 이창용, 주현우, 김동진(이상 DF) 등 주축과 재계약

1. 10. 브라질 출신 MF 마테우스 영입

1. 31. 이창용 주장, 김동진 외 1명 부주장 선임

2. 22. 시즌 유니폼 디자인 공개

3. 1. 홈 개막전 승리(VS 성남 2-0)

3. 7. 북한 대표팀 출신 MF 리영직 영입

4. 13. 코리아컵 포함 개막 후 7경기 무패(6승 1무)

4. 21. 시즌 첫 2연패(코리아컵 포함)

5. 19. 리그 5경기 연속 무패(3승 2무)

7. 8. 리그 4경기 연속 무패(3승 1무)

7. 24. 마테우스와 재계약

7. 30. 브라질 출신 FW 니콜라스 영입

10. 6. 시즌 첫 리그 3연패

10. 20. 시즌 최다 골 & 최다 점수 차 승(VS 부산 4-1)

11. 2. 창단 첫 우승 & K리그1 승격 확정

11. 9. 시즌 최종전(VS 경남)



모든 스포츠,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하여!



스포츠에 대한 진심,
열정 가득한 도전,
포기하지 않는 용기!

BETTER SPORT

- CLOTHING SALES
- SPONSORSHIP & PARTNERSHIP
- MD LICENSE

www.vexxsports.com

@v_exx_official

오늘의 일상도 걱정없이

Enhance Your Everyday

오상헬스케어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생화학, 면역, 분자 진단 분야에서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00여개 국가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고객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어디서나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더 나은 일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편한 검사와 신속한 진단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순간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하여 오늘의 안심과 내일의 기대, 일상 어디서나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